



열사를 1년만에 보내드립니다

3월 4일 한광호열사 장례식

1년만이다. 작년 3월 17일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꼭 1년만에 장례를 치른다. 노조파괴에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사의 염원을 아직 완전히 이루진 못했지만 이제는 보내드리려고 한다. 노조파괴 범죄자인 유시영 대표이사가 구속됐고 공장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거짓을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힘으로 증명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사 앞에 조금은 당당히 이후 투쟁의 결의할 것이다.

노조파괴 범죄 엄벌하는 성과 얻어

한광호열사 투쟁으로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일은 극소수라며 뻔뻔하게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한 노조파괴 범죄를 '죄질이 좋지않'다며 법정구속까지 시켰다. 이제 사업주들도 노조파괴 하려면 구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성과는 원청인 현대차가 개입한 정황까지 확인했

다는 점이다. 법원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의 합작이라고 봤다. 이제 현대차 관련자들에게 대한 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가 끝날 수 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투쟁해서 얻은 성과다. 정말 처절하게 끈질기게 싸워서 얻은 승리다. 큰 고비를 넘은 만큼 노조파괴를 완전히 끝장낼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자.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꼭 승리하자!

사업주를 구속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남았다. 유성기업을 대표이사가 구속된 직후에도 반성은커녕 금속노조를 협박했다. 어용노조도 이에 발맞춰 금속노조 타도 투쟁을 한다며 날뛰다. 마지막 발악인 줄은 알지만 발악도 정도껏 해야한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조직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현대차까지 처벌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열사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완전히 노조파괴 끝장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故 한광호 열사 추모주간

- 2/27(월) 11:00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서울 광화문 광장)
- 2/28(화) 10:30 현대차 기소를 위한 재정신청 인용 촉구 기자회견 (대전고법 앞)
- 12:00 전국동시다발 추모 행동 (검찰, 법원, 현대차 앞 1인 시위)
- 3/02(목) 14:00 빈소 및 분향소 (영동병원 장례식장)
- 19:00 열사 추모 기도회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 3/03(금) 19:00 열사 추모 문화제 (영동 삼일공원)
- 3/04(토) 06:00 발인제 (영동병원 장례식장)
- 07:30 노제 (유성기업 영동공장)
- 12:00 영결식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 16:00 하관식 (천안 풍산공원 묘역)